

buddhanews.com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되 내가 했던 말 하지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으로 거기다 맡겨 놓고 지켜본다. 지켜보면 체력이 되고 체력이 되면 '아, 고놈이로구나!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그때는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죠.

질문자(3남)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자(4남)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덕과 죄업은 상쇄되는 것이지요. 그 점이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주시지 바랍니다.

스님 그런데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야까도 얘기했듯이 한마음 속에서 잘못하게 하는 마음을 쓰기도 하고, 즉 말하자면 도독질을 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음 속에서 나오죠. 즉 말하자면 방승국에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방승국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 자체에서는 어느 거든지 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천수만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나 약행이나 그것은 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되는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갈라져 있다 붙어 있다. 이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음먹는 대로니까요.

질문자(5남)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는 학생인데요, 학교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바쁠 때는 법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 있어서 봄에 몇 달 동안 법회에 안 왔었는데, 법회에 안 오니까 생활이 좀 무기력한 것 같고 일이 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7월부터 법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서는 불교를 기복 신앙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의 경우는 법회에 참석하면 뭘지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복이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도 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가끔은 좀 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복 신앙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스님 하하하... 아니, 그러면 사는 게 전부 기복이죠.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왜 기복입니까? 그게 당당한 바로 자기 자성의 발현이죠. 타의를 놓치고서 빌고 타의에서 찾지 말라 하는 거지 자기 자성에서 일어나는 건 어떤 거든지 그냥 자성 그대로 법이죠.

질문자(5남) 그리고 스님 법어집 『무』에 보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핑계 삼아서 조금 소심해서 잘하지 못했던 것이나 계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대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런데 말이에요, 이 무(無)의 정신계라는

거는 물질이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정신계라는 것은 설계도가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그렇죠? 설계가 나오기 이전이니까 집을 어떻게 짓든지 설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해 놔야 집을 짓죠. 생각을 낼 때는 물건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물건이 어디서 오든 올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게 뭐냐 하면 마음과 마음이 일체가 다 같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거든요. 마음이라는 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우주 법계에 실현이 되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한다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뿌리를 무조건 믿고 거기다 놓고 관찰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가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아, 과감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것이 틀이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모두를 알

생명들이 있고 많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의식들을, 의식들의 마음 나오는 거를 다 다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주인공,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공부 잘하게 할 수 있고, 너의 심부름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잘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맡기고 그렇게 진짜로 믿어, 네 영원한 친구야, 알았어?

학생(남) 예.

스님 (남자 어린이가 울리는 꽃다발을 받으시며) 너 왔구나! 하하하... 많이 컸구나! (합장하시며) 아이고, 절도 다 할 줄 알고!

질문자(8남)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오늘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실 그 마음공부의 대상이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제한돼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고통과 고난

그런 참 선자(禪者)가 되세요.

질문자(8남) 그래도 이해가 안돼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선원에서 스님께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 또 가정에서 문체에 부딪칠 때는 자기에게 이익 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마음자리에 두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사람이 안 온다 온다 이런 문제들, 뭐 잊속을 찾는다, 이(체)가 부진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아,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가 딱 맡기고 그냥 진짜로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묘한 법은 여러분이 아마 열심히 해야 아실 겁니다.

질문자(8남) 그럼 스님! 나한테 병이 있다든가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겪고, 이 마음자리가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끄달리지 않는다면 율바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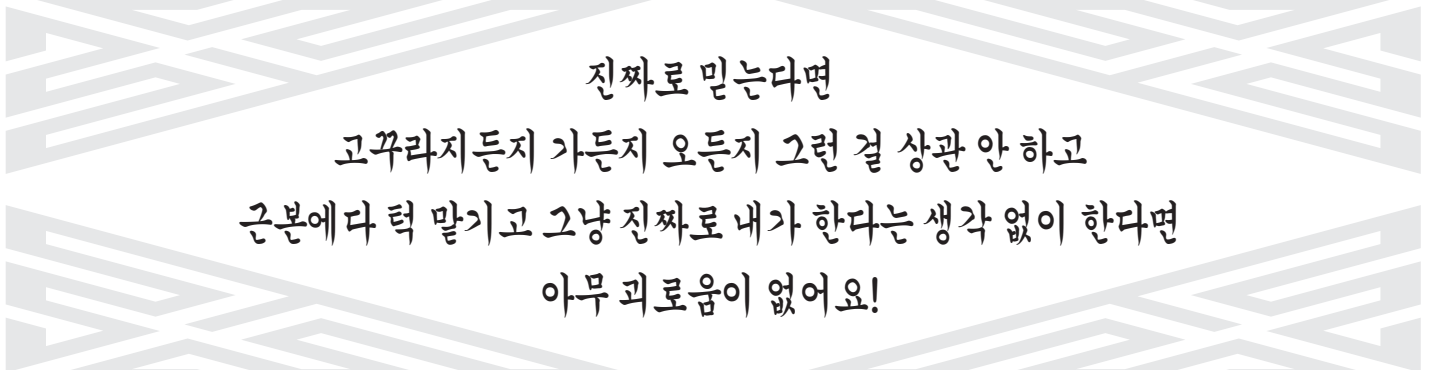
스님 그거야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 하고 놔야 되죠. 그리고 또 제 몸을 제가 끌고 가는데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죽으면 내 집합소가 없어지는데, 내 집합소가 없어지면 너도 죽잖아?'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입니다. 지금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야,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또는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남과 같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다 놓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걸어오실 때에 그냥 서서 걸어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오긴 했는데 발자취를 하나도 짚어지고 온 게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돈벌이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 아래에서 걸어오실 때에 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대중 박수) 걸어오긴 틀림 없이 걸어왔는데 걸은 사이가 없다. 내가 짚어지고 온 게 아니니까. 밟이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걸은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자기가 했던 말 하지 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공용으로 했다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공용으로 한 것이지 자기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왔는데,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은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위 공장 하나만 그냥 파워가 일어나도 다리도 떼어 놓지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한 거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그게 참 묘하죠.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하하하...

*위 법문은 1993년 9월 19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해서요.
질문자(5남) 감사합니다.

스님 (삼 배를 올리는 다음 질문자에게) 한 번만 하세요.

질문자(여) 스님, 뭘 봐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마음선원을 처음 왔습니다. 애는 고등학교에 갈 게 아들이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주위가 산만하고 불안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 잘 들어 봐. (왼쪽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시며) 저 나무에 뿌리가 있어, 없어요?

학생(남) 있습니다.

스님 있는데, 나무는 흙에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 보지요?

학생(남) 예.

스님 사람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의 근본 뿌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주인공이라고 이름 해. 그 주인공만이 너의 마음을 모두 이끌어 줄 수가 있다고. 네 몸속에 많은

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님의 제자로서,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 새롭게 추구하고 또 바라야 될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침 주시옵기 바랍니다.

스님 지금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 포기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예요. 나만 스승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강도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풀 하나도 풀 흘러가는 것도 스승이예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 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일체 만물만생 모두,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삼심 삼세, 그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러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산란해서 진짜 골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거기다 맡기고 지켜보는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 까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내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아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림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리가 없고, 개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육신을 내서 생각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한국불교조계종 입종 안내

한국불교조계종은 청정한 중단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화합중단입니다.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여 해탈 열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탐마하고 수행정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인류 평화통일에 동참합시다.

행자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중앙교무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합장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문의 : 032)518-1588, 011-9524-8080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혜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佛山 佛壽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종회위원 역
· 한해동불교대학 대학원교수
· 한동원불교대학 객원교수
· 한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의 제차이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기본학습
제 2장-중요경전
제 3장-불공편
제 4장-진언과 다라니
제 5장-각종발원문
제 6장-기도체험수기
제 7장-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자기기도법
제 10장-불교기초지식
제 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국제 결혼 안내

본 중단에서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몇 년 전부터 결혼을 못한 초·재혼 불자들을 중국(한족,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 02)2242-1049, 011-9090-1049

(재)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 법사

책자 안내

- 1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2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3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4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5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6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7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8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요령서 조성의의.
- 9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續) 백발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